

태양섬의 잉카 시조신화와 통치 정당성*

우 석 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우석군(2013), 태양섬의 잉카 시조신화와 통치 정당성

초 록 잉카 시조신화는 크게 빠까리캄보 기원설과 띠띠까까 기원설로 나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후자가 훨씬 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띠까까 기원설이 좀 더 호소력을 발휘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두 가지 설의 혼합설, 즉 잉카 시조들이 띠띠까까에서 지상에 출현해 빠까리캄보를 거쳐 꾸스꼬에 정착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실제로 띠띠까까 호수에 잉카 시조신화가 깃든 태양섬과 성스러운 바위가 존재하고, 잉카인들이 이 섬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 태양의 신전을 건축했다는 전설도 있다. 하지만 띠띠까까 기원설은 잉카가 15세기에 이 지역을 정복한 뒤에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잉카 이전부터 태양 숭배 신앙이 있었기에 잉카 시조들이 띠띠까까에서 처음 지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편이 지배를 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띠띠까까 기원설은 또한 9대 군주 빠차꾸펙이 태양신과 잉카 군주를 동일시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도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빠까리캄보 설에는 잉카 시조들이 태양신의 자손이라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핵심어 잉카, 시조신화, 띠띠까까, 태양섬, 빠까리캄보, 통치 정당성, 종교개혁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면서

잉카 창건 시점에 대해서는 존 H. 로우가 주장한 서기 1,200년경 설이 (Rowe 1946, 198) 많이 언급된다. 로우가 잉카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려고 노력한 학자이며 잉카 연구의 대가이기는 하지만, ‘1,200년’이라는 시점을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이너 톰 주데머 같은 경우는 정복 이후 주로 스페인인들이 뒤늦게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잉카 역사의 정확한 연대를 산출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볼 정도다. 잉카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신화로 받아 들여야지 역사적 진실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¹⁾

잉카 창건 시점도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판이니 잉카 시조신화 역시 이설이 많고, 이 설들 중에서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인지 밝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크게 빠카리탐보(Pacariqtambo) 기원설과 띠띠까까(Titicaca) 기원설로 대별되고, 빠카리탐보 설이 역사적 진실과 좀 더 가까우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띠까까 설이 오히려 더 많이 확산되어 있다. 이는 띠띠까까 호수의 자연조건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주도 4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호수이고, 일대가 다 고원지대라 하늘이 넓게 보이는데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때문에 태양신 숭배를 비롯한 하늘 숭배 신앙이 일찍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띠띠까까 기원설은 잉카 군주들이 띠띠까까 일대의 통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 나아가 9대 군주 빠차꾸텍(Pachacútec)은 띠띠까까 기원설을 군주를 신격화시키는 종교개혁에 이용하여 지배를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잉카 시조신화를 다룰 이 글은 먼저 II장에서 두 가지 기원설에 대해, III장에서는 두 가지 기원설의 혼합설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IV장과 V장에서는 띠띠까까 기원설을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하

1) 로우의 시도를 역사주의, 주데머의 관점을 구조주의라 부른다. 이 두 관점은 잉카 연구에서 상반된 주요 입장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Burga(2005, 127-140)와 McEwan(2006, 195-201)을 참조하라.

고자 한다.

II. 두 종류의 잉카 시조신화

잉카 시조신화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신화는 꾸스꼬에서 직선거리로 2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빠까릭팜보의 팜보또꼬(Tambotoco) 언덕에 있는 세 개의 혈(穴)에서 세 집단이 출현했고, 이들 중에서 가운데 혈에서 출현한 네 명의 아야르(Ayar) 형제와 네 명의 여인 주도로 이주를 시작하여 꾸스꼬에 정착해 잉카 문명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여인들은 아야르 형제와 남매간이라고도 하고 각각의 부인이라고도 한다. 아야르 망꼬는 이후 망꼬 까빠(Manco Cápac)²⁾으로 불리고, 그의 부인 이름은 마마 오끄요(Mama Ocllo)이다. 두 번째 신화는 태양신이 남매이자 부부인 망꼬 까빠와 마마 오끄요를 창조하여 페루와 볼리비아에 걸쳐 있는 띠띠까카 호수로 내려 보냈고, 이들이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꾸스꼬(Cusco)에 정착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꾸스꼬, 빠까릭팜보와 띠띠까카 호수의 위치. 회색 부분이 띠띠까카 호수이다.(Urton 2004, 15)

2) ‘까빠’는 ‘권능을 지닌 사람’(el poderoso) 혹은 ‘풍요로운 사람’(el rico)이라는 뜻이다. ‘풍요롭다고 해서 단지 물질적 부를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넘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망꼬 까빠’는 또한 ‘망꼬 잉카’(Manco Inca)로도 불린다. 잉카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따완틴수유(Tawantinsuyu)라고 불렀다. ‘잉카’는 좁게는 따완틴수유의 군주, 넓게는 왕족을 뜻한다. 심지어 왕족을 배출한 파나까(panaca)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원래 혈연 공동체를 뜻하던 아이유(ayllu) 중에서 군주를 배출한 아이유가 파나까이다. ‘잉카’와 ‘까빠’는 따완틴수유의 군주 이름에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시조신화들이 그렇듯, 잉카 시조신화에도 수많은 이설이 있다. 빠까리팜보 설의 경우 등장인물이 8명이나 되다보니 각자의 이름, 역할, 위상 등이 무수히 엇갈린다. 엔리케 우르바노(Henrique Urbano)에 따르면 1542년에서 1653년 사이에 기록된 것만 해도 40여 가지 종류라고 한다(재인용, Urton 2004, 29). 가령, 아야르 망꼬와 마마 오끄요가 아니라 아야르 망꼬와 아야르 아우카 두 형제가 핵심인물로 등장하는 설이 빠까리팜보 설에서 대표적인 이설이다. 띠띠까까 설도 망꼬 까빠과 마마 오끄요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부류의 이야기들과 바위 혈(穴)을 통해 지상으로 나왔다는 부류의 이야기들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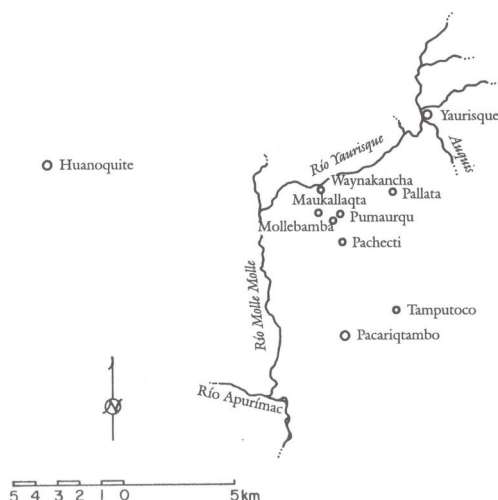
그렇다면 빠까리팜보 설과 띠띠까까 설 중에서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일까? 확실한 것은 띠띠까까 설은 신빙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잉카 가르실라스는 『잉카 왕실사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1609)에서 3대 군주 요케 유빵끼(Lloque Yupanqui) 때부터 잉카인들이 띠띠까까 일대를 복속시켰다고 말하지만(Garcilaso de la Vega 1995, 112-114), 띠띠까까 일대의 잉카 건축물들은 15, 16세기의 것이다. 그래서 잉카인들이 제8대 군주인 비라꼬차(Viracocha) 때부터 띠띠까까 일대를 넘보기 시작해, 9대 빠차꾸텍 잉카 유빵끼(Pachacútec Inca Yupanqui)와 10대 투팍 잉카 유빵끼(Túpac Inca Yupanqui)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통치를 확고히 하였다는 주장이(Mesa *et al.* 2005, 58-61) 훨씬 더 설득력 있다. 잉카 시조들이 띠띠까까를 떠나 꾸스꼬에 정착했다가 후대에 다시 띠띠까까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면 띠띠까까 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빠까리팜보 설이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니다. 빠까리팜보 설의 주요 연구자인 게리 어튼은 현재 꾸스꼬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2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빠까리팜보 마을을 비롯해 인근의 마우까약따(Maukallaqta), 뿌마우르꾸(Pumaurqu), 팜뿌또꼬³⁾ 유적지들을 조사한 끝에 오늘날의 빠까리

3) 게리 어튼은 팜뿌또꼬(Tamputoco)로 표기함.

팜보 마을은 1571년 만들어졌으며, 잉카 시대에는 마우까약파와 뿌마우르꾸가 각각 빠까리팜보 설 속의 빠까리팜보와 팜보또꼬와 흡사하다고 말한다(Urton 2004, 44-50). 어튼은 빠까리팜보 마을의 유지인 로드리고 수딕 까야빠냐(Rodrigo Sutiq Callapiña)가 자신이 망꼬 까빱의 후손이라는 증언을 1569년에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718년 서류도 발굴한다. 그리고 그와 마을 사람들 몇 사람이 빼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Pedro Sarmiento de Gamboa)가 톨레도(Francisco de Toledo) 부왕의 명으로 『잉카 역사 *Historia de los Incas*』(1572)를 집필할 때 정보 제공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밝힌다(Urton 2004, 13). 아마도 이들은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에게 자신들이 망꼬 까빱의 후손으로 대대로 그 마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튼은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 이전의 그 어떠한 기록에도 빠까리팜보라는 지명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Urton 2004, 13). 로드리고 수딕 까야빠냐의 증언도 고작해야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의 『잉카 역사』 집필 몇 년 전 일이고, 그나마 1718년 서류에 담겨 있으니 『잉카 역사』가 잉카의 발상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가장 오랜 현존 기록인 셈이다.

그래서 어튼은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가 이 책을 쓸 무렵에 현재의 빠까리팜보가 잉카의 발상지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잉카의 발상지를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의 명예욕과 망꼬 까빱의 후예임을 내세워 식민질서 속에서도 일말의 특혜를 누리고자



〈그림 2〉 오늘날의 빠까리팜보 마을과 팜보또꼬. 어튼은 이 두 장소가 아니라 좀 더 북쪽에 위치한 마우까약파와 뿌마우르꾸가 잉카 시대의 빠까리팜보와 팜보또꼬라고 보고 있다.(Urton 2004, 43)

했던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어튼의 추측이었다(Urton 2004, 44-50). 하지만 그는 빠까리팜보 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빠까리팜보가 1571년 이전에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보다는 그저 신화 속의 지명이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는 하지만, 잉카의 시조들이 꾸스꼬 가까운 곳에서 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복 이전부터 자신들의 거주지를 잉카의 발상지로 믿었던 꾸스꼬 인근 주민들 중에서 현재의 빠까리팜보를 잉카의 발상지라고 주장한 집단이 나왔으리라는 것이다(Urton 2004, 147-150).

III. 혼합설과 태양성

빠까리팜보 설도 띠띠까까 설도 확실한 증거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잉카 시조들이 꾸스꼬 인근에서 왔을 개연성을 훨씬 더 타당하게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띠까까 설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왔으며, 심지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첫째,

-
- 4) 피와나꾸 문명은 페루 중부 안데스에서 볼리비아 안데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최초의 문명이다. 안데스 지역에서, 그리고 나아가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는 기원전 900~200년 사이의 차빈(Chavín) 문명을 꼽아 왔다. 전성기에는 페루 북부 안데스를 거점으로 해서 해안지대까지 다스렸다고 한다. 하지만 리마 북쪽 200킬로미터 지점에서 발견된 유적지 연구를 통해 남미 최초의 문명은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199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메소아메리카 문명보다 오랜 것이고, 소위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의 기원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이에 대해서는 Shady Solís(2005)를 참조하라. 현재로서는 피와나꾸 문명이 까랄과 차빈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피와나꾸 문명의 주요 유적지는 라빠스에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띠띠까까 호수가 지척이다. 이 문명의 기원, 발전, 멸망 등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지만, 피와나꾸 연구에 평생을 바친 카를로스 뽀산히네스에 따르면 기원전 16세기에 띠띠까까 일대에 촌락이 형성되고, 오늘날 남은 유적지를 중심으로 BC 2세기~AD 2세기 사이에 국가로 성장했으며,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는 띠띠까까 호수 일대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는 제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번영을 누리다가 12세기 말에 멸망하였다(Ponce Sanginés 2002, 49). 전성기 때는 페루 남부 안데스와 볼리비아 여러 지역으로 팽창하여 그 영토가 고대 이집트와 맞먹는 275,000-600,000km²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Ponce Sanginés 2002, 116).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페루 중부 안데스에서부터 볼리비아 안데스를 통틀어 최초의 문명인 티와나쿠(Tiwanaku) 문명이⁴⁾ 태양을 숭배한 흔적이 있고 잉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잉카의 띠띠까까 기원설 확산을 조장했다. 둘째, 빠까리킴보는 특별한 매력이 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고 접근 가능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지역이었고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띠띠까까 호수가 잉카의 발상지로 더 어울린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개입된 측면도 있다. 셋째, 빠까리킴보가 꾸스꼬에서 너무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호소력을 경감시킨 측면이 있는 듯하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조신화가 그렇듯이, 잉카의 시조들도 인간 세계를 구원하러 온 문화영웅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화 속 영웅들은 먼 길을 곧잘 떠나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되어야 한다(조셉 캠벨 1992, 246). 직선거리로 꾸스꼬에서 26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빠까리킴보는 고난의 여정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이다. 아마도 이런 측면 때문에 빠까리킴보 설과 띠띠까까 설이 혼합된 신화가 생겨난 듯하다. 다음은 『잉카 왕실사』에 등장하는 혼합설이다.

우리 아버지 태양께서는 이런 영(令)과 함께 두 자식을 이곳에서 80레구아⁵⁾ 떨어진 띠띠까까 호수로 내려 보냈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으로 가고, 마음 내키는 곳에 멈추어 먹고 잘 것이며, 증거이자 징표로 내린 1/2바라⁶⁾ 길이와 손가락 두 배 굵기의 황금 막대를 땅에 꽂아보라고 했다. 단번에 땅에 꽂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정착하여 조정(朝廷)을 꾸릴 곳이라는 것이었다. [...]

우리 아버지 태양께서는 두 자식에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천명하시고는, 그들을 떠나보내셨단다. 그들은 띠띠까까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길을 갔지. 길을 가는 내내 멈추는 곳마다 황금 막대를 땅에 꽂으려고 했지만, 결코 꽂히지 않았단다. 그리하여 어느 객주 혹은 조그만 방에 들게 되었는데, 이 도시[꾸스꼬] 남쪽으로 약 7~8레구아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에는 빠까리킴보(‘동이 트는 객사[客舍] 혹은 잠자리’라는 의미)라고 부르는 곳이지. 동이 틀 무렵에 그 객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잉카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단다. 빠까리킴보는 군주께서 후에 마을을 세우라고 명한 여러 마을 중 하나로, 오늘날 그곳 주민

5) 레구아(legua). 약 5.5킬로미터.

6) 바라(vara). 76.8~91.2센티미터.

들은 그 이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잉카께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란다.

그와 우리의 왕비이신 부인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이 꾸스꼬 계곡에 당도하셨는데, 당시에는 전체가 험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단다.(Garcilaso de la Vega 1995, 41-42)⁷⁾

잉카 가르실라소는 이 대목에서 띠띠까까 호수의 어느 장소에서 잉카 시조가 출현한 것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중에 띠띠까까에 얽힌 신화, 태양섬(Isla del Sol), 이 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태양의 신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Garcilaso de la Vega 1995, 199-202) 오늘날 볼리비아 영토인 태양섬이 잉카의 시조들이 출현했다는 신화가 얹혀 있는 장소임을 언급한다.



〈그림 3〉 성스러운 바위의 혈(필자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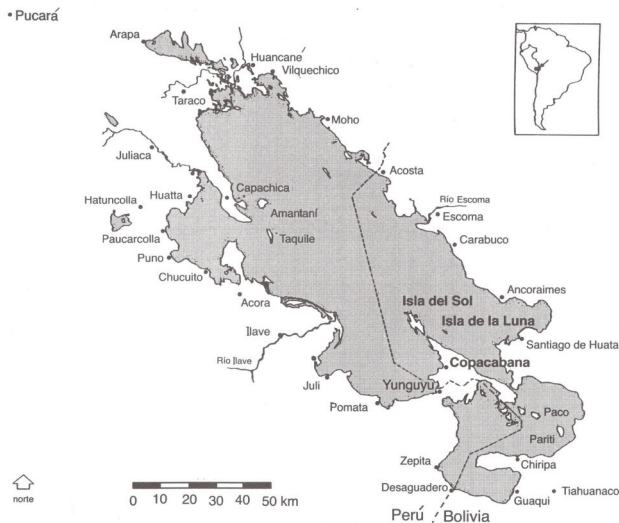
실제로 태양섬 북쪽에는 잉카의 시조 망꼬 까빠와 마마 오끄요가 출현했다는 신화가 깃든 ‘성스러운 바위’(Roca Sagrada)가 존재한다. 이 바위의 혈(穴)에서 잉카의 시조들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띠띠까까 일대에 많이 거주하는 아이마라인들은 이 바위를 ‘퓨마바

위’라는 뜻을 지닌 ‘띠띠까까’라고도 불렀다(Milligan 2001, 60). 띠띠까까 호수의 명칭이 이 바위에서 유래한 셈이다. 다만 성스러운 바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위의 인용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선 잉카 가르실라소가 잉카의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띠띠까까 설도 잉카의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종류의 이야기와 이처럼 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두 종류로 대별되기 때문에 심각한 불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차이는 잉카 가르실라소는 ‘띠띠까까’가 ‘납으로 된 산맥’이라는

7) 번역은 우석균·강성식의 미출간 『잉카 왕실사』의 것임.

뜻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Garcilaso de la Vega 1995, 199). 하지만 잉카인들과 아이마라인들의 언어가 각각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이기 때문에 어원의 차이도 그러려니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잉카인들은 태양섬에 태양의 신전(Templo del Sol)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섬 북쪽의 몇몇 유적지가 태양의 신전 터로 거론된다. 까사빠타(Kasapata) 유적을 신전 터로 지목하는 의견도 있고, 성스러운 바위 지척에 있는 친까나(Chincana)를 비롯한 일련의 유적지를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Bauer and Stanish 2003, 210-211). 문제는 태양의 신전이라고 볼만한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나온 유적은 없다는 점이다. 반면, 태양의 신전의 존재를 언급하는 역사적 기록은 많다. 1548년 피피까까 일대를 돌아본 시에사 데 레온이 그의 저서 『페루 연대기』(1553)에서 잉카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금은보화가 넘쳐났다는 태양의 신전이 피피까까 호수에 존재했다는 기록을 남긴 이래(Cieza de León 1995, 280-281) 이와 유사한 기록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심지어 잉카 가르실라소는 태양섬의 태양의 신전이 꾸스꼬의 태양의 신전 꼬



〈그림 4〉 피피까까 호수의 태양섬, 달섬, 꼬빠까바나 위치. 점선 오른쪽이 볼리비아, 왼쪽이 페루 영토이다(Bauer and Stanish 2003, 39).

리칸차(Coricancha)에 비견될 정도로 잉카인들에 아주 중요한 신전이었다고 말한다(Garcilaso de la Vega 1995, 202). 하지만 오늘날 태양섬의 유적들을 보면 규모가 큰 신전의 흔적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스페인인들이 태양섬에서 태양의 신전을 보고 그 규모나 화려함에 놀랐다가, 이를 약탈, 파괴했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가령, 바우어와 스타니쉬는 프란시스코 뻬사로(Francisco Pizarro)가 꾸스끄를 장악한 후 정찰을 위해 파견한 두 사람의 스페인이 돌아와 태양섬에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신전에 금은보화를 바치고, 600명 이상의 인원이 신전에서 일한다고 보고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서 얻은 목격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Bauer and Stanish 2003, 72). 위에 언급한 시에사 데 레온의 기록에도 의문을 표한다. 시에사 데 레온의 『페루 연대기』의 두드러진 특징이 생생하고 자세한 묘사인데, 태양섬과 태양의 신전이 있다고 서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직접 방문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Bauer and Stanish 2003, 75). 이런 이유로 해서 태양의 신전이 태양섬에 진짜로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신전의 규모, 호화로움, 중요성 등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IV. 잉카의 팽창과 통치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

태양의 신전의 존재 자체나 규모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잉카 시대에 태양섬은 물론 인근의 달섬(Isla de la Luna)까지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달섬에 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이 있다. 뻬드로 뻬사로(Pedro Pizarro)의 『페루 여러 왕국의 발견과 정복 보고서 Relación del descubrimiento y conquista de los reinos del Perú』(1571)에 상반신은 금으로 되어 있고 하반신은 은으로 되어 있는 실물 크기의 여인상이 달섬에서 운반되어 까하마르카에 머물고 있던 스페인인들에게 아파왈빠의 몸값 일부로 넘겨졌다는 기록이다(재인용, Bauer and Stanish 2003,

123-124). 그렇다면 태양섬의 금은보화 역시 스페인인들이 수색하기 전에 이미 아파왈빠의 몸값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수색대가 태양의 신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말이다.

태양섬과 달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띠피까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식민지시대 기록을 남긴 인물로 꼽히는 알론소 라모스 가빌란(Alonso Ramos Gavilán)과 베르나베 꼬보(Bernabé Cobo)⁸⁾의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태양섬과 달섬이 잉카 시대 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성소였다고 주장한다(Bauer and Stanish 2003, 26-27). 태양섬과 달섬을 세 번째로 꼽은 것은 꾸스꼬의 꼬리칸차(Coricancha)와 리마 인근의 빠차까막(Pachacámac) 다음 가는 성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빠차까막 숭배야말로 태양섬과 달섬이 잉카 시대에 중요한 섬이었고 태양섬에 실제로 태양의 신전이 있었으리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빠차까막은 리마에서 약 31킬로미터 남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오아시스 지대라서 서기 2세기부터 1533년 스페인인들에 의해 약탈, 파괴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주거지였다.⁹⁾ 전체가 다 모래사막인 페루 해안에서 빠차까막 일대는 문명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중부 해안지대 전체를 놓고 보아도 거주 조건이 좋은 편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차까막은 일찍부터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요지로 성장하였다. 께추아어가 빠차까막에서 사용된 언어인데 이를 잉카인들이 제국의 공용어로 삼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며, 이

8) 페루 와망가(Huamanga, 오늘날의 아야꾸초) 출신인 라모스 가빌란은 1618년에 태양섬과 1킬로미터 거리인 꼬빠까바나 반도의 중심지 꼬빠까바나(Copacabana)에 왔으며, 1621년 『꼬빠까바나의 누에스트라 세뇨라 성전 이야기 *Historia del Santuario de Nuestra Señora de Copacabana*』를 발간했다. 꼬보는 1616년 띠피까 일대에 와서, 적어도 스페인인들이 달섬의 황금을 다시 찾아 나선 이듬해까지는 호수 일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1653년 『신세계 역사 *Historia del Nuevo Mundo*』를 발간했다. 두 사람 모두 태양섬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꼬보의 기록은 라모스 가빌란이 남긴 기록을 상당 부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한다(Bauer and Stanish 2003, 64).

9) 빠차까막 문명에 대해서는 빠차까막 박물관의 웹사이트(<http://pachacamac.perucultural.org.pe/>)를 참조했다.

도시와 동명의 신인 빠차까막은 페루 중부 해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이름을 떨쳤다(Rostworowski de Diez Canseco 1988, 42-43). 스페인인들은 까마르카에서 아파왈빠를 생포한 후 빠차까막의 엄청난 부에 대해서 듣고 급히 부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발견했고 상당한 양의 금은보화를 얻었다(Cieza de León 1995, 213-215).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잉카인들이 빠차까막을 정복한 뒤에도 빠차까막 신에 대한 숭배를 없애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태양의 신전을 세우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잉카 가르실라소는 빠차까막 신앙이 잉카인들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Garcilaso de la Vega 1995, 392-393). 즉, 원래 잉카인들이 믿었던 신이기 때문에 굳이 근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빠차까막 신앙은 잉카인들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빠차까막 신은 빠차까막 일대의 지역신이었다. 그러다가 서기 650년경 페루 중남부 안데스의 와리(Wari) 문명이 빠차까막을 점령했을 때 안데스에도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따라서 잉카 가르실라소의 주장은 그의 특유의 잉카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잉카 시대에도 빠차까막이 여전히 중요한 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잉카가 종교에 관한 한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양 숭배와 같은 국가 차원의 공식종교가 존재했지만, 공식종교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지역신 숭배와의 공존도 허용했다(McEwan 2006, 137). 그리고 이런 원칙은 피정복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특히 잉카인들은 빠차까막을 정복한 뒤에 태양의 신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빠차까막 신전을 새로 단장하고 규모도 키웠다고 한다. 빠차까막 신은 대지모신이지만 해안지대에서는 조물주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데스 고지대의 비라코차 신(위라코차라고도 부름)과 성격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었다(McEwan 2006, 147). 물론 ‘조물주’라는 개념이 지극히 서구적 시각의 산물

10) 와리 문명에 대해서는 González Carré *et al.*(1997, 57-111).

이라 안데스의 종교체계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잉카의 신이 아니었던 빠차까막이 잉카에서 때로는 태양신보다 우위에 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비라코차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이는 잉카가 종교적 관용을 넘어 해안지대의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빠차까막 숭배를 이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양섬과 달섬의 성지화도 마찬가지로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두 섬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 당시 이 지역의 강자였던 꼬야인(*los collas*)들과 루빠가인(*los lupacas*)들의 중심지는 각각 아툰코야(*Hatun Colla*)와 추꾸이토(*Chucuito*)였다. 따라서 잉카인들 입장에서는 태양섬과 달섬보다는 이 두 지역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카인들이 두 섬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태양섬의 경우 도로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때문에 잉카 군주들, 특히 뚜빠 잉카 유쌍끼와 연관된 수많은 전설이 태양섬과 관련해서 생겨났다. 스페인인들이 두 섬에 탐험대를 여러 차례 파견할 정도로 성지로서의 명성이 높았던 이유는 태양섬과 달섬은 물론 호수가의 꼬빠까바나라는 곳이 잉카인들이 지배하기 훨씬 전부터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져 순례 행렬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꼬빠까바나는 심지어 식민지시대에도 가톨릭 신앙과 결합되어 안데스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로 떠올랐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곳이었다고 한다(Bauer and Stanish 2003, 76). 즉, 잉카인들 입장에서 꼬빠까바나는 빠차까막 사례처럼 피정복민의 종교를 전유하여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좋은 재료였을 것이다. 가령, ‘띠띠까까’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푼마바위, 즉 성스러운 바위는 피와나꾸 전성기인 서기 400~1,100년 사이 어느 순간부터 띠띠까까 일대에서 널리 숭배되기 시작했다(Bauer and Stanish 2003, 178). 따라서 잉카가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태양섬에 태양의 신전을 건축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태양의 신전이 있었다면 잉카 시조신화에 부합되는 혈이 있는 성스러운 바위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성스러운 바위 근처의 띠까니(*Tikani*) 봉 능선에 두 개의 구조물 흔적이 있

고, 6월 동지 때 태양이 이 구조물 사이로 정확히 진다는 점도(Bauer and Stanish 2003, 246-247)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일출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바위 앞에 비교적 넓게 펼쳐진 평지에서 일몰을 보며 거행하는 태양숭배의식은 성스러운 바위 숭배를 전유하여 태양숭배로 전환시킴으로써 띠띠까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¹¹⁾ 앞서 소개한 『잉카 왕실사』의 혼합설에 대한 잉카 가르실라소의 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그 일대 원주민들이 띠띠까까 호수와 태양섬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는 것을 본 망꼬 까빠이 이 혼합설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Garcilaso de la Vega 1995, 200). 망꼬 까빠이 때 이미 띠띠까까 일대에 대한 통치 정당성 확보 문제를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지인들의 신앙과 잉카 시조신화를 결합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후대의 잉카 군주들이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태양섬과 잉카의 종교개혁

잉카의 태양숭배는 띠띠까까 일대의 피지배자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잉카에게 정복당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띠와나꾸 문명이 태양을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여겼다. 띠와나꾸 문명이 남긴 대표적인 유물인 태양의 문(La

11) 달섬에는 이낙 우유(Iñak Uyu)라는 신전이 있다. 아이마라어로 ‘이낙’은 ‘여인들’(mujeres)을 ‘우유’는 ‘울타리’(cerco)를 의미한다. 이 신전은 달 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태양과 달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간택된 처녀들의 처소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운데 광장을 둘러싸고 3면에 건물이 들어선 U자형 건축이 잉카 건축에는 아주 드문데, 꾸스꼬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빠까리팜보 기원설의 무대로 지목되는 마우까야파 유적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Bauer and Stanish 2003, 154). 그렇다면 잉카인들이 태양섬의 ‘성스러운 바위’로 띠띠까까 기원설을 조작해 낸 반면, 달섬의 이낙 우유를 통해서 진짜 그들의 기원이었던 빠까리팜보를 기렸다는 가설도 성립된다. 그러나 이낙 우유가 마추픽추를 제외하면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는 잉카시대 신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가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Puerta del Sol)에 그 자취가 뚜렷이 남아있다. 현재 볼리비아의 띠와나꾸 유적지에 있으며, 1794년 발견된 태양의 문은 춘분이나 추분 때 태양이 떠오르면 최초의 빛이 상인방(上引枋) 바로 아래를 통과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인방 가운데 새겨진 인물 부조는 마치 햇살



〈그림 5〉 띠와나꾸 유적지의 태양의 문(필자 사진 자료)

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태양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그리고 뽀세 산히네스는 양손에 지배자의 홀을 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태양신인 동시에 띠와나꾸의 군주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한다(Ponce Sanginés 2002, 110). 이는 띠와나꾸가 잉카처럼 태양신과 군주를 동일시하는 신정일치 사회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점은 이 군주-태양이 일반적으로 튜누빠(Tunupa)로 통했다는 점이다. 튜누빠는 띠와나꾸 문명과 그 이후 띠피까까 일대의 꼬야인(오늘날의 아이마라인들의 선조)들 사이에서 최고의 신성 중 하나였다(Mesa *et al.* 2005, 25). 앞서 언급한 비라꼬차의 지위를 지닌 셈이다. 그러나 비라꼬차와 튜누빠의 경계는 종종 허물어져서 같은 신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질 좋은 옥수수가 생산되어 잉카 군주의 직영농장이 있었던 꾸스꼬 인근의 오안파이탐보(Ollantaytambo)에 사람 형상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비라꼬차 혹은 튜누빠로 불리는 사례를 들 수 있다(Elorrieta Salazar y Elorrieta Salazar 2002, 83-91). 그런데 튜누빠-비라꼬차가 인간을 창조한 곳이 바로 띠피까까였다는 주장이 어느 순간부터 안데스의 전반적인 믿음이 되었다(McEwan 2006, 145). 그리고 잉카 군주들은 때로는 비라꼬차를 태양신보다 상급의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태양신에게 비라꼬차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McEwan 2006, 139). 나아가 잉카 군주는 때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때로는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다. 띠와나꾸 문명에서 튜누빠-태양신-군주의 동일시

되었듯이 잉카 시대에도 비라코차-태양신-군주의 동일시된 것이다.

군주와 태양신을 동질시하는 신격화 작업이 벌어진 시기는 잉카의 급속한 팽창을 이끈 9대 군주 빠차꾸텍 시대였다. 빠차꾸텍은 비라코차를 태양신의 상급 신으로 숭배하기를 택했다. 비라코차와 태양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잉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태양의 신전이었던 꼬리깡차의 태양 숭배 홀에 잉카 군주들의 조각상도 같이 두었다는 점에서 태양신과 잉카 군주를 동일시하는 일종의 종교개혁도 단행했다(Rostworowski 2011, 145-146). 그런데 잉카 시조들의 띠띠까까 기원설은 띠띠까까 일대에 대한 통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했지만, 빠차꾸텍이 주도한 이러한 군주의 신격화 차원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빠까리팜보 설의 경우 『잉카 왕실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잉카의 시조들이 태양의 자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Garcilaso de la Vega 1995, 46-48). 즉, 빠까리팜보 설에는 군주와 태양신을 동일시할만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띠띠까까 기원설의 경우는 태양섬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근거하고 있고, 태양신이 잉카의 시조들을 지상에 내려 보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태양신과 창조주의 경계가 희미하다. 게다가 ‘띠띠까까’라고 불리던 섬 이름이 세월이 지나면서 ‘태양섬’으로 개명되어 태양과 잉카 군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잉카 군주를 신격화하거나 태양신과 동일시하는 작업에 더욱 좋은 재료가 띠띠까까 설이었던 것이다.

VI. 나가면서

지금까지 잉카 시조신화에 대한 소개와 이 신화가 잉카 군주들의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았다. 사실 본 연구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글일 수밖에 없다. 띠와나꾸, 와리, 빠차까막 문명과 이들과 관련된 종교 체계까지 두루 언급하기에는 지식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잉카에 대한 연구 자체도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다. 아무래도 잉카 문명에 문자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이

다. 게다가 정복과 식민지시대 초기에 전쟁, 전염병, 강제이주 등으로 원주민 인구가 10분의 1까지 감소되는 과정에서 잉카 왕실에 대한 기억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서 연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잉카 시조신화를 기록한 이들이 주로 스페인인들이어서 언어 장벽, 세계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원주민 정보 제공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들이 남긴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띠띠까까 기원설이 빠까리팜보 기원설보다 더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띠띠까까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이 지역에 투누빠-비라코차 숭배와 태양신 숭배가 잉카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이다. 셋째, 잉카 시대에도 이 신앙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잉카인들이 태양섬처럼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도 특별히 관리했다는 점이다. 비록 전설 속 태양의 신전처럼 대규모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 지을 만한 확증은 없지만 말이다. 이 세 번째 사실 때문에 잉카 군주들이 그들의 시조신화를 띠띠까까 일대에 대한 통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나아가 태양신과 군주를 동일시하는 빠차꾸펙의 종교개혁에 이용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정복 직후 시기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잉카 군주의 죽음이 원주민들에게는 우주적 혼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ssio A. 1973, 157; Wachtel 1976, 71). 물론 이런 현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잉카가 14세기 중반부터 위낙 급속하게 팽창하여, 스페인인들이 정복에 착수했을 때 마음으로 복속하지 않고 있던 부족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잉카인들에게 잉카 군주의 죽음이 지배자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빠차꾸펙 때 단행한 종교개혁으로 잉카 군주가 신격화되면서 천상과 지상을 잇는 유일한 매개자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신격화 과정에서 띠띠까까 기원설을 내용으로 한 잉카 시조신화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한 것으로 추론되며, 그 때문에 띠띠까까 기원설의 신빙성이 빠까리팜보 설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호소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조셉 캠벨(1992), 『신화의 힘』, (빌 모이어스와의 대담, 이윤기 옮김), 고려원.
- 빠차까막 박물관, <http://pachacamac.perucultural.org.pe/>
- Bauer, Brian S. and Charles Stanish(2003), *Las Islas del Sol y de la Luna: ritual y peregrinación en el lago Titicaca*, (trad. de Javier Flores Espinoza), Cuzco: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 Burga, Manuel(2005), *La historia y los historiadores en el Perú*, Lima: Fondo Editorial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y Fondo Editorial Universidad Inca Garcilaso de la Vega
- Cieza de León, Pedro(1995), *Crónica del Perú, primera parte*, 3a ed., 2 tomos, Lima: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Elorrieta Salazar, Fernando y Edgardo Elorrieta Salazar(2002), *Cusco y El Valle Sagrado de los incas*, Lima y Cusco: Tanpu S.R.L.
- Garcilaso de la Vega, Inca(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2 tomos, reimpresión, (edición, índice analítico y glosario de Carlos Aranibar),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González Carré, Enrique et al.(1997), *Ayacucho: San Juan de la Frontera de Humanga*, Lima: Banco de Crédito del Perú.
- McEwan, Gordon F.(2006), *The Incas: New Perspective*,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 Mesa, José de et al.(2005), *Historia de Bolivia*, 5a edición actualizada y aumentada, La Paz: Editorial Gisbert.
- Milligan, Max(2001), *Realm of the Incas*,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 Ossio A., Juan M.(ed.)(1973),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2a ed., Lima: Ignacio Prado Pastor.
- Ponce Sanginés, Carlos(2002), *Tiwanaku y su fascinante desarrollo cultural*, La Paz: CIMA.
- Rostworowski de Diez Canseco, María(1988), *Estructuras andinas del poder: ideología religiosa y política*, 3a ed.,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Rostworowski, María(2011), *Pachacutec*, 1a reimpresión, Lima: Instituto de Estudios

- Peruanos.
- Rowe, John H.(1946), *Inca Culture at the Time of the Spanish Conquest*, Julian H. Steward(ed.), *Handbook of South American Indians*, Vol. II, Washington, D.C.: Bureau of American Ethnology.
- Shady Solís, Ruth(2005), “Caral-Supe y su entorno natural y social en los orígenes de la civilización”, *Investigaciones Sociales*, Año LX, No. 14, pp. 89-120.
- Urton, Gary(2004), *Historia de un mito. Pacariqtambo y el origen de los inkas*, (trad. de Alberto Miori), Cuzco: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 Wachtel, Nathan(1976), *Los vencidos: los indios del Perú frente a la conquista española(1530-1570)*, trad. Antonio Escobotado, Madrid: Alianza Editorial.

우 석 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wsk65@snu.ac.kr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27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9일

The Incas' Myth of Origin in relation to the Island of the Sun and the Governing Legitimacy

Suk 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oo, Suk Kyun (2013), The Incas' Myth of Origin in relation to the Island of the Sun and the Governing Legitimacy

Abstract The Incas' myth of origin is generally divided into two versions. One indicates Pacariqtambo as the place of origin and the other, Lake Titicaca.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know which is correct. But the Lake Titicaca version is less convincing. However, this version has prevailed until today. There was even a version that combines both, but indicating the Lake Titicaca as the place of origin and Pacariqtambo as the place of passage. In Lake Titicaca, Sun Island with a sacred rock, indicated as the place of Incas' origin. It is said that the Inca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island and built a temple of the sun. However, it seems that these events were conducted to gain political legitimacy after the conquest of that region. Titicaca version could also be a suitable material for a kind of religious reformation carried out by Pachacutec, since the Pacariqtambo version doesn't mention clearly that the founders of the Inca were sent by the Sun.

Key words Inca, Myth of Origin, Titicaca, Island of the Sun, Pacariqtambo, Governing Legitimacy, Religious Reformation